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창작 커뮤니티

Case Study 2: 우리들의 학원

건축과 도시 설계 과정에 사람들의 참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천적 제안



서울 THE 5TH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5

1. 이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전국에는 10만 개가 넘는 학원이 있고, 전체 학생의 약 80%가 학원을 다닌다. 매년 이 공간에만 약 26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출된다.”

창작커뮤니티

이 프로젝트는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창작 커뮤니티 (Creative Communities)'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비엔날레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서울의 건물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공간들이 조금 더 즐겁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를 함께 탐색하는 자리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새로운 창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비엔날레를 전문가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으로 확장하는 일이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총 8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148명의 창작자와 1,21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0개 팀이 선정되어, 약 7개월 동안 9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직접 참여했다.

각 프로젝트는 2D 아트워크(8.25m × 4.8m)를 제작해 서울 도심 공원에 설치된 '휴머니이즈 월(Humanise Wall)'에 전시되었다. 또한 도시건축전시관 인근 전시와 연계되었으며, 서울시청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함께 소개되었다.

익숙함에 가려진 공간

사람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공간에서 보낸다. 이 공간들은 익숙하고 반복적이다. 특별히 주목받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기다리고 머무르며 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공간은 우리의 감정과 일상의 흐름에 조용히 영향을 준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공간은 상업적으로 운영된다. 효율과 회전율, 관리의 용이성 같은 기준이 공간을 조직한다. 반복되다 보면 이런 방식은 당연한 것으로 굳어진다. 그러는 사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은 점차 뒤로 밀린다.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원이다. 학원은 사적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교육 공간이지만, 수많은 아이들과 청소년이 거의 매일 드나드는 장소다. 전국에는 10만 개가 넘는 학원이 있고, 전체 학생의 약 80%가 학원을 다닌다. 매년 이 공간에만 약 26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출된다. 규모만 보아도 학원은 이미 도시의 중요한 일부다.

보이지 않는 사용자들

많은 한국 청소년에게 학원은 가끔 들르는 교실이 아니다. 거의 매일 드나드는 공간이다. 늦은 오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럼에도 학원은 공적 논의의 바깥에 머문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사적인 실내 공간으로만 여겨진다.

학생과 부모, 교사들은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 경험이 사회적 논의나 설계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이 간극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이 환경이 자신에게 어떤 기분을 남기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거의 묻지 않는다. 그들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으로 남고, 기록되지 않으며,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학원은 수년 동안 거의 매일 머무르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의 시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학원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을 때였어요.”

‘우리들의 학원’(Our Hagwon)은 이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했다. 공간에 대한 논의에서 늘 빠져 있던 사람들, 그들의 기억과 감정, 일상의 관찰을 모으는 것. 이 프로젝트는 그것을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공간이 그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기억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다루었다.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일상을 가장 강하게 형성하는 공간일수록 오히려 공론장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은 시장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사적이고 기능적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잘 인식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학원은 건축적 논의의 출발점을 바꾸고자 했다.

- 보이지 않는 사용자 → 드러나는 기여자
- 전문가 중심 → 사용자 경험 중심
- 사적 공간 → 공적 논의의 대상
- 해결책 → 출발점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주변에 머물러 있던 건물 유형을 하나의 시민적 의제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하나의 정답이나 모델이 아니다. 대신 관점을 옮기는 일이다. 사적이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던 공간 역시 함께 이야기하고, 다시 읽고,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들의 학원은 특정 건물 유형을 개선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 도시는 일상의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공간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일이 더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다시 꺼내는 일에 가깝다.



2. 누가 참여했는가?

참여 구조

이 프로젝트는 네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 경험 기여자

학원 공간을 반복적으로 직접 경험해 온 사람들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기억, 관찰, 불편했던 순간들, 익숙한 장면들을 공유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요구사항이나 대표 의견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각 이야기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이자,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읽히고 배치되어야 할 조각으로 다뤄졌다.

2. 번역자와 큐레이터

두 번째 역할은 이러한 경험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기여된 내용은 하나의 주장으로 정리되기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수집되고 배열되었다. 성급하게 설계 언어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면서, 경험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도록 했다.

3. 공간 해석자

세 번째 그룹은 이 자료를 공간적 질문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공통의 주제 틀 안에서 작업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건축적으로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왔다. 동시에 공간 자체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4. 공공 커뮤니케이터

마지막 역할은 전시, 대화, 공개 발표를 이끌었다. 서로 다른 기여가 동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미지와 해석, 공간적 아이디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기보다 서로 나란히 드러나도록 했다.



구성 방식

우리들의 학원의 참여는 느슨하고 열린 구조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기 다른 시점에 프로젝트에 들어왔다.

네 개의 해외 대학에서 80명 이상의 학생이 디자인 스튜디오, 토론, 공개 워크숍에 참여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일반 시민, 특히 학원을 매일 이용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어떤 참여자는 한 장의 이미지나 짧은 관찰을 남겼다. 어떤 이는 더 깊이 관여했다. 참여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랐고, 특정한 균형이나 대표성,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정되지는 않았다.

이들을 연결한 것은 같은 유형의 공간을 경험했다는 점이었다. 각 기여는 방과 후 교육 공간을 마주하고 해석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로 정리되거나 통합되지 않았다. 대신 공통의 틀 안에서 나란히 놓였다. 그 결과 학원은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해답으로 보이기보다, 여러 경험과 시선이 겹쳐 만들어진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공간은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해답으로 보이기보다, 여러 경험과 시선이 겹쳐 만들어진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우리들의 학원 프로젝트
관련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프로젝트는 다섯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공통의 틀 설정

첫 단계는 참여를 위한 공통의 틀을 세우는 일이었다. 기획자들 역시 오래 지나쳐온 공간을 다시 바라보려 했다. 평소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던 순간들, 공간이 또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던 때와 거의 의식되지 않았던 때, 편안함을 주던 순간과 제약을 느끼던 순간을 먼저 스스로 질문했다. 그 안에서 시간과 움직임, 멈춤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 과정은 이후 모든 기여를 읽고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다. 개인적인 인상이 평가나 해결책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경험이 먼저 드러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공모와 참여의 연결

두 번째 단계는 사진 공모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학원을 이미지로 담아냈다. 사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과 분위기, 관계를 포착하는 데 적합한 매체다. 특히 참여자 중 많은 수가

어린이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글이나 비평 형식의 설명이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미지는 참여의 문턱을 낮추었고, 감정과 일상의 반응이 주장으로 정리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모를 통해 22점의 작업이 모였고, 함께 읽고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각 자료가 형성되었다.

현장 기반 조사

세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를 실제 사용 환경과 연결하는 일이었다. 인터뷰, 설문, 현장 관찰 등 현장 기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학원 건물이 특히 밀집되어 있고 활발히 사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자료가 추상적 비판에 머물지 않고, 서울의 학원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간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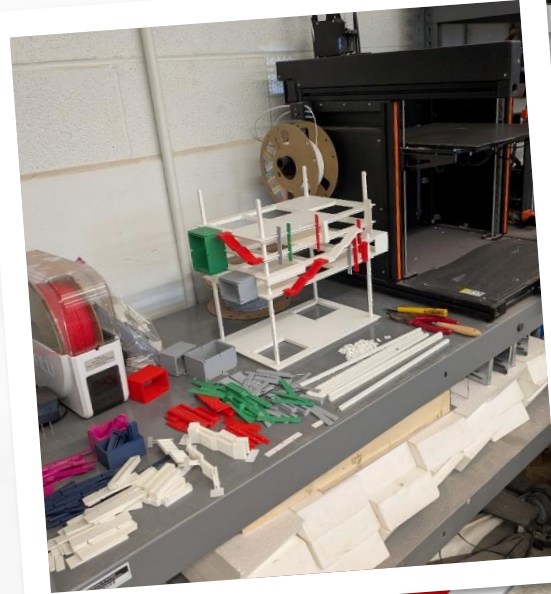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하나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적 질문을 던지고, 건축적으로 다시 읽어보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나의 제안을 도출하는 대신, 같은 경험이 어떻게 서로 다른 공간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탐색했다. 차이는 정리되기보다 그대로 드러나도록 두었다.

공공과 공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해석을 공공과 공유했다. 먼저 심포지엄을 통해, 그리고 이어서 전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대학 심포지엄에서 학생, 건축가, 연구자, 교육자가 모여 프로젝트의 과정과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후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전시를 통해 더 넓은 대중과 만났다. 시각 자료와 공간 해석, 기록된 경험은 도심 공원의 휴머니즈 월을 포함한 전시 공간에서 공개되었다.

이처럼 학술적 토론과 공공 전시를 오가며, 우리들의 학원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료가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도 다시 읽히고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울

4.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익숙한 환경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

많은 한국 청소년에게 학원은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진다. 이미 스트레스가 큰 경험인데,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그것을 더 힘들게 만든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학원 안에 있으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어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학원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던 이야기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사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공간이 이제는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다.

전시와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같은 자료를 나란히 마주할 수 있었다. 학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았다. 누구나 살펴보고, 질문하고, 다시 상상해볼 수 있는 공동의 경험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란히 놓인 장

이 프로젝트는 기억과 감정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전환했다. 그러나 차이를 하나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을 그대로 두면서도 공통의 기준점을 만들었다. 해석은 합의에서 나오기보다, 나란히 놓인 차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어질 논의의 토대

이 프로젝트는 한국 교육 경험의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지와 공간 해석, 경험 자료는 학술과 실무, 시민의 영역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서울은 이제 이러한 일상의 상업 건물이 도시 환경, 공적 책임, 일상의 경험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되었다.



“차이를 하나로 정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그대로 둔 채 공통의 기준점을 만들었다.”

5.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 프로젝트는 2025년 서울 비엔날레 '창작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선정된 9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각 프로젝트에는 2천만 원(약 13,000달러)의 공공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 지원은 공모, 현장 기반 조사, 학술 교류, 공공 공유 전반에 활용되었다. 또한 작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다시 읽히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남겼다:

- (1) 기존 커뮤니티가 없던 주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 (2) 함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공간의 자료를 남겼다.
- (3) 참여와 기록, 공적 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을 만들었다.



6.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들의 학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거의 돌아보지 않았던 일상 공간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배움을 남긴다.

1. 참여는 전제가 아니라 설계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명확한 공동체나 집단적 정체성이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무엇을 남기며, 서로의 경험을 어떻게 마주하는지를 세심하게 구성하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쉽게 꺼내지 않았던 문제를 중심으로도 참여가 형성될 수 있다. 참여는 전제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가 될 수 있다.

2.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는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피로와 불편함을 이미 느끼고 있다. 다만 반복 속에서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굳이 말로 꺼내지 않을 뿐이다. 참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감각을 다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

3. 상업적 건물 역시 공공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시장 논리와 효율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은 종종 사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공간 역시 도시의 일상과 맞물려 있다. 전문가나 시장의 영역에만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이다.



4. 차이를 나란히 두는 것이 합의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하지 않았다. 여러 시선을 나란히 두었다.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을 나란히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해는 동의에서 나오기보다, 차이를 마주하는 자리에서 생겨난다.

5. 시각적 틀은 개인의 기억을 공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다.

사진과 공간 해석의 시각적 이미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억과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나로 묶지 않아도, 이 프로젝트에서 구성한 다초점 시각적 틀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표현은 개인의 감각과 공동의 이해를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6. 이 프로젝트는 해답이라기보다 이어질 질문을 남긴다.

이 프로젝트는 학원의 설계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익숙한 건물 유형을 다시 보게 만들었고, 공공, 학계, 실무의 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 이 작업은 결론이라기보다, 상업 공간이 우리의 도시 생활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더 이어질 논의를 위한 출발점에 가깝다.



우리들의 학원 프로젝트
관련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 커뮤니티(Creative Communities)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전의 주요 프로젝트로, 시민과 창작자들이 함께 도시와 건축을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례연구는 창작 커뮤니티의 기획과 실행 과정, 참여 경험 및 주요 성과를 기록하고 이를 국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연구 및 집필은 프로젝트 참여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와 장혜림이 수행하였습니다.



서울
THE 5TH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5

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HUMANISE

Heatherwick studio